

사회

■ 물폭탄 장마... 광주기상청 예보관 24시

“예보 적중 보람있지만 홍수땀 죄책감”

“올 장마철에는 욱 먹을 각오를 하고 호우주의보나, 예비 특보를 한 발 앞서 내렸습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다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까요.”

2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1번지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과 이재병(52·기술 서기관) 과장은 “예

주의보 타이밍 놓치면 큰 피해

비특보가 내려지면, 시·군·구청 방재담당 공무원들은 자다가도 사무실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때문에 호우주의보나 예비 호우특보를 내릴 때 망설여지지만 장마철에는 ‘고민하지 말고’ 특보를 신속하게 내보냈어야. 그래서 빗나가기도 많이 했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기상예보관은 일기예보 업무 말고는 달리 평가를 받을 게 없다. 평가는 점수로 순위가 매겨져 내부에 공개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특보를 내리면,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 일도 없어 원성을 들을 이유가 없고, 평가도 ‘보통’ 이상은 받을 수 있다. 한발 앞선 특보가 자칫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시작된 올 장마는 예년과 달랐다. 많지 않은 양의 비가 꾸준히 왔던 예년과 달리 ‘물폭탄’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남이 농촌지역이라는 점도 호우특보를 한 템포 빠르게 한 요인이 됐다. 지난 7일 오전 신안군 자은도에는 1시간에 무려 108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농산물 수확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농민에게 대비시간을 벌여주면서, 공무원도 미리 현장에 나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빗나간 예보’보다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급변한 장마 양상에 밤샘 일주

이 과장은 “조금씩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 그대로 퍼붓는 ‘양동이 비’가 더 문제”라며 빠른 예보를 강조했다.

광주·전남과 전북지역을 관할로 둔 광주지방기상청에 속한 방재 기상과는 호우주의보나 대체특보 등 방재에 필요한 기상특보를 내리는 것이 주요 업무다.

이 과장 아래에는 4명의 방재 예보관이 있다.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는 예보관에게 발령 권한이 있다. 하지만, 방재 기상과장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

한 사람의 생각은 한가지이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넷, 다섯으로 커진다. 게 예보관들의 설명이다. 이는 곧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예보관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곧 생명’이라고도 했다.

자연의 영역 넘보며 예보 신중

기상 예보관들의 일상은 한마디로 고달프다. 예보가 빗나가기라도 하면 항의전화는 물론 피해를 댈 뻔 죄책감마저 든다. 이 과정은 장마철에 접어들어 뒤 최소한 보름 이상을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그의 사무실 한 칸엔 군 막사나 있을 법한 간이침대와 캐비닛 속에 이불과 속옷, 양말, 여벌의 옷 등이 들어 있었다. 상당기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혼적’들이다.

이 과장은 “퇴근을 하더라도 마음은 온통 기상청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상청 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 앞에서 밤을 보내는 게 편하다”면서 “장마가 끝난 뒤에는 게임라성 쪽우가 예상돼 아마도 올 여름은 휴가도 있고 기상청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khh@kwangju.co.kr



23일 광주지방기상청 직원들이 무선통신장비를 통해 기상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기상정보는 호우 등 기상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송출되며, 산악이나 해상 활동 등을 위해 무선통신장비를 갖춘 지역민에게 전달된다. /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공시장 들며 금품갈취 사이비 기자 2명 구속

광주·전남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환경 관련 ‘사이비 기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4일 공사현장의 잘못이나 환경문제 등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환경전문신문 기자 박모(55)씨와 구모(51)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15일께 완도군 한 부두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A씨에게 “폐콘크리트와 비산먼지 등의 문제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140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환경 전문지 기자인 구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전남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편의점서 유유 구입 장애인 구토 증세

24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편의점에서 유유를 구입한 지체 장애인 윤모(48)씨가 집으로 돌아가 이를 마신 후 구토증세를 보여 경찰에 신고를 했다.

윤씨는 “유유를 마시는 순간 목 쓰는 맛과 함께 이상한 냄새가 나 유유를 뱉었다”고 진술했다. 문제의 유유는 모 유가공 전문회사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9일이나 남은 다음달 2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공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유유공정에서의 변질 여부, 이물질이 주입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희기자 khh@kwangju.co.kr

PC방 카운터 빈 틈 노려 도둑질

“...‘키보드가 이상하다’며 PC방 종업원을 호출한 뒤 카운터가 빈 틈을 노려 현금들

한 뒤 카운터가 빈 틈을 노려 현금들 10대 3명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24일 PC방에서 종업원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카운터를 비우게 한 뒤 밖에서 대기하던 일당을 통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모(19)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8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PC방에서 종업원 김모(19)군에게 “키보드가 고장났다”며 호출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

○...김군은 경찰에서 “종업원만 없으면 돈을 쉽게 훔칠 줄 알았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열대야 기준 바뀐다

‘밤기온 25도 이상’으로 열대야의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뀐다.

기상청은 그간 열대야 기준을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적용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가 발생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모순을 개선하려고 24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령, 지난 17일의 경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전날 밤부터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17일 저녁에 기온이 떨어져 이날 하루 최저기온이 22.9도를 기록하면서 통계상으로 16일 밤이 열대야로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외고 설립 ‘공립’ 검토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사립 외국어고 설립 신청이 없으면 공립 외국어고 설립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날 시교육위원회 임시 회의 답변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모를 통해 사립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신청이 없으면 ‘공립 설립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외국 설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일부 사학에서 외국 설립을 신청하기

도 했으나 우수교원 확보 어려움, 경기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사립고 2곳이 설립 신청을 자진철회함에 따라 내년 3월 개교 목표가 물거품 됐다. 이들 사립고는 우수교원 확보가 쉽지 않고 법인전입금 부담도 작지 않아 외국 설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과 강원을 제외하면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다. /박진표기자 lucky@



삼계탕 드시고 더위 이겨내세요 중북(中)의 24일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은 광주지역 독거노인과 복지시설 노인 500여명을 무각사 사당으로 초청해 여름보양식인 삼계탕을 제공했다. 이날 노인들에게 제공된 삼계탕은 무각사가 매달 2~3차례 열고 있는 유기농 식품 장터의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장 비서관에 뒷돈 준 교수 구속

업체서 받은 2억 중 1억 전달·1억은 빼돌려... 검찰 수사 확대

‘광주시청 비서관 역대 뇌물사건’과 관련해 영모(39) 비서관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넨 대학교수가 검찰에 추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4일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영씨에게 전달한 광주 모 대학 교수 최모(44)씨를 뇌물공여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유-페이먼트’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영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G업체 전 대표인 하모(45)씨로부터 1억원이 든 가방 2개를 건넨바는 뒤 뇌물제공 장소에서 5천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역대 뇌물을 받아 챙긴 영씨와 G업체 전 대표 하씨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최씨는 검찰에서 “(하씨) 광주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두 번에 걸쳐 각각 1억원을 받았으며,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5천만원씩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의 자백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1억원의 착복 여부와 용처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7년 광주시가 ‘유-페이먼트’ 사업을 입안할 당시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 전반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

인사

- ◆광주시 (4급 승진) ▲규제개혁부담담당관 허익배 ▲교통정책과장 노광범 ▲시립도서관장 윤상선 ▲(재)광주세계광역스포츠 주남식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이상배 ▲건강증진과장 차재준 ▲농산유통과장 박영선 ▲남구 전출(국장요원) 박진홍 ▲광산구 전출(국장요원) 김정옥 (4급 승진대상자) ▲농축성장담당관 직무대리 정만표 ▲정보화담당관 직무대리 김홍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 홍화성 ▲방재관리과장 직무대리 박득서 (4급 전보) ▲문화예술과장 김효성 ▲사회복지과장 유광중 ▲국제협력과

- 장 박홍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정남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신덕찬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민규 ▲문화예술과장 문승민 ▲여성발전센터장 최연주 ▲동구 전출(국장요원) 박종열 ▲서구 전출(국장요원) 한재만 ▲남구 전출(국장요원) 임근현 ▲남구 전출(국장요원) 정환성 ▲보건환경연구원 하준 (사무관 전보) ▲공보관실 한동희 ▲감사관실 김하봉 ▲종합민원실 김재연 ▲F1대회준비기획단 김선호 ▲정책기획관실 소영호 ▲정책기획관실 배동진 ▲법무담당관실 이기춘 ▲법무담당관실 이기춘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홍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장 이기수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오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반재홍 ▲서구 전출(국장요원) 김병권 ▲충무파 최상윤

- 사무처 박종균 ▲농업기술원 김한필 ▲농업기술원 신연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유상섭 ▲여수엑스포조직위 과장 최정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고병수 ▲나주시 조성길 ▲인력관리과 김종갑 ▲노인복지과 윤연화 ▲농업정책과 박철순 ▲농업기술원 정경주 ▲농업기술원 임경호 ▲보건의환경연구원 하준 (사무관 전보) ▲공보관실 한동희 ▲감사관실 김하봉 ▲종합민원실 김재연 ▲F1대회준비기획단 김선호 ▲정책기획관실 소영호 ▲정책기획관실 배동진 ▲법무담당관실 이기춘 ▲법무담당관실 이기춘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홍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장 이기수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오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반재홍 ▲서구 전출(국장요원) 김병권 ▲충무파 최상윤 ▲농산물유통과 조영익 ▲의회

Today's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including a map of the region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districts.